

# 한국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경락\*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 A Study on Improving Transparency in Accounting for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Companies

Gyeong-Rak Lee \*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윤리경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통해 장기적 이윤창출과 자본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방안으로 회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대학의 교과과정에 경영윤리나 회계윤리 교과내용을 포함, 각종 회계관련 자격시험에 회계윤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국내외의 회계부정 사례들을 체계적인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 K-IFRS가 실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강화, 온 국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윤리적 마인드를 함양 그리고 지도층의 자기반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속가능한 성장, 회계투명성, 회계부정, 윤리경영, 비윤리경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la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enhancement for Korean firms' sustainable growth and moral management. Moral management is not optional but essential strategy under global competitive circumstances. It has been proved that sustainable growth was possible through moral management. The pla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enhancement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below. The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the role and function of accounting, including contents related accounting ethics in university business curriculum or accounting curriculum, including contents related accounting(management) ethics in various accounting qualification examination, building and utilization of systematic knowledge base on accounting fraud, strengthen supervision for implementation of stable and reliable K-IFRS, improving public ethics through strengthening ethical awareness, devotion of community leaders for the nation and society etc.

**Key Words** : Sustainable Growth,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Frauds, Moral Management, Immoral Management

Received 27 November 2013, Revised 20 Dec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Gyeong-Rak(Baekseok University)  
Email: krlee@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국가선진화지수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40개국(선진국 30개국과 선발개도국 10개국) 중에서 종합순위가 28위로 3년 전의 31위보다 3계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가수 사이의 음악, K-pop, 대장금 등 한류드라마와 영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었거나 국제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부문을 10개의 세분류와 37개의 세세분류로 나누고 각 평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도출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선진화지수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도서출판 수, 영화생산량, 일간신문 수, 방송국 수를 평가하는 문화경쟁력은 3년 전의 28위에서 18위로 크게 약진하였으나 사회부문의 경쟁력은 30위로 3년 전의 27위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윤리경영, 공공부분의 부패인식, 범죄서 인식 및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여가, 보건, 인프라, 탄소배출량의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선진화 지수를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선진국에 비해 R&D기술, 정보통신, 새로운 문화창출 관련지표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노사분쟁, 범죄서, 문화의 다양성, 국제참여 및 국제공헌 부문에서는 약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선진화지수 2013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문화창 교수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는 경제 등 소수 강점부문에 의존하는 전략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통해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약점들을 최근 발생한 한화그룹, LG 그룹, CJ 그룹, 태광그룹, SK 그룹 등 대기업의 오너들의 횡령, 배임,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하는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부패지수

### 2.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우리나라는 작년 6월 23일을 기점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20-50클럽’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일본(1987년), 미국(1998년), 프랑스(1990), 이탈리아(1990), 독일(1991년), 영국(1996년)이었고, 영국 이후 16년 만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었다.

20-50클럽은 국가의 규모와 소득수준에서 강대국의 면모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이후 당분간은 20-50 클럽에 가입할 국가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호주와 캐나다는 국민소득은 높지만 낮은 인구성장률로 인해 인구가 5,000만 명을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Table 1 참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는 인구규모는 크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Table 2 참조>.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그 이후 인구나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확고한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Table 3 참조>.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2]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를 제시한 다음의 <Table 4>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가통계포털[3]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출산을 하락으로 2030년 5,21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45년에는 4,981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Table 5 참조>.

<Table 1> Population and Per Capita Income of Australia, Canada

Australia		Canada	
Population	Capita Per Income	Population	Capita Per Income
2,344 ten thousand	64,047 \$	3,518 ten thousand	52,283 \$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Table 2〉 Population and Per Capita Income of Chian, Indo, Brazil, Russia, Mexico

	Population(ten thousand)	Capita Per Income(\$)
China	138,557	5,957
Indo	125,214	1,476
Brazil	20,362	11,162
Russia	14,283	13,603
Mexico	19,713	9,713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Table 3〉 Population and Per Capita Income of Japan, USA, France, Italy, Germany, England

	Joined year in 20-50 Club/ Population(ten thousand)/ Capita Per Income(\$)	2013 Population (ten thousand) / 2012 Capita Per Income(\$)
Japan	1987/12,203/20,366	12,714/48,321
UAS	1988/24,497/20,821	32,005/50,039
France	1990/5,669/20,151	6,429/41,563
Italy	1990/5,669/20,151	6,099/32,826
Germany	1991/7,998/22,693	8,273/42,047
England	1996/5,816/20,900	6,314/38,765
Korea	2012/5,000/23,680	5,022/23,680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Table 4〉 Korea's major economic indicators

	Year 2008	Year 2010	Year 2012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dollar)	201	292	327
Market cap. of listed shares(trillion won)	577	1,142	1,154
Curent account (billion dollar)	0.32	29.4	48.1
Unemployment rate(%)	3.2	3.7	3.2
Dishonored bill rate(%)	0.03	0.03	0.02

\*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Table 5〉 Population estimate of Korea (ten thousand)

Year 2013	Year 2030	Year 2035	Year 2040	Year 2045
5,022	5,216	5,188	5,109	4,981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또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에 2012년에 비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4].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요원인은 비윤

리적 경영, 금융 및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복한리스크 등이다. 국가경쟁력은 경제적 측면의 국가생산성 내지 국민소득 증대능력과 잠재성장능력을 말하지만 광의로운 한 국가의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쟁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전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은 25위에서 34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한선재단의 국가선진화지수 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측면에서도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청년한선기자단이 발표한 「선진화에 대한 20대 인식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들은 선진화를 과학, 기술, 경제발전이라는 양적 성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56%) 선진화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5]. 또한 조세평(2013)은 「국제개발 협력현장에서 본 대한민국의 선진화」에서 현지에 적합한 발전과 개발을 추구하는 현지화 노력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원조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6].

〈Table 6〉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Rating agencies	World Economic Forum (WEF)
Rating of Year 2012	19 of 148 countries
Rating of Year 2013	25 of 148 countries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자살 인구수가 2002년의 17.9명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니엘 투터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에서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선진화를 추구하다가 자신들만의 놀라운 역사와 풍부한 문화, 고유한 정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7].

## 2.2 우리나라의 부패지수[8]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로서 1995년 이후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

표하는데 1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CPI는 공공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세계은행 등 7개의 독립적인 국제평가기관에서 국가별 공직자 부패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CPI가 5.0에서 2012년 5.6점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조사대상 159개국 중 40위에서 조사대상 176개국 중 45위로 하락하였다. OECD 회원국에서의 순위도 2005년 조사에서는 대상국 30개국 중 22위였으나 2012년에는 조사대상국 34개국 중 27위로 하락하였다 <Table 7 참조>.

<Table 8>의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만과 말레이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에 비해서 CPI의 점수와 국제순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Changes of Korea's CPI

Year	2005	2007	2009	2011	2012
CPI	5.0	5.1	5.5	5.4	5.6
National Ranking	40/159	43/180	39/180	43/183	45/176
OECD Ranking	22/30	25/30	22/30	27/30	27/34

\* 출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Table 8> CPI of Asian Countries (score/ranking)

Year	Singapore	HK	Japan	Taiwan	Korea	Malaysia
2012	8.7/5	7.7/14	7.4/17	6.1/37	5.6/45	4.9/54
2011	9.2/5	8.4/12	8.0/14	6.1/32	5.4/43	4.3/60

\* 출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2010년의 CPI 국가순위 상위 10개국(평가대상 178개국)의 국가선진화지수를 나타낸 <Table 9>를 보면 CPI 10위권 내의 국가중 7개 국가(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델란드,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가 국가선진화지수 순위에서도 10위권 내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정도가 낮고 공직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가 낮은 청렴한 국가들일 수록 국가선진화지수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선진화지수를 평가하는 5개 부문 중에서도 법질서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측면에서 2010년의 27위에서 2013년의 30위로 가장 많이 하락하여 문화측면의 상승(2010년의 28위에서 2013년의 18위)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NAI of CPI Top10 (Year 2010)

Country	CPI Ranking/Score	NAI (40 Countries)
New Zealand	1/9.3	19
Denmark	1/9.3	5
Singapore	1/9.3	22
Sweden	4/9.2	1
Finland	4/9.2	6
Canada	6/8.9	12
Netherlands	7/8.8	7
Swiss	8/8.7	3
Australia	8/8.7	10
Norway	10/8.6	2

\* 우리나라의 2010년 CPI 순위/점수, 국가선진화지수 순위는 각각 39위/5.4점, 31위임.

\* 출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NAI 2013

### 3.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윤리경영 실태

200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내 500대 매출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1.4%가 기업윤리현장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윤리경영이 기업의 이윤을 높이고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국내의 연구결과 [10][11][12]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배임, 횡령, 기업어음 사기발행 등으로[13] 기업총수가 법정구속되거나 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법정관리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Table 10 참조>.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총 72개 코스닥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되었는데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회계부정, 횡령과 배임이 25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윤리경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윤리관과 의지가 절대적인데 우리나라 일부 최고경영자들은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리더로서 조직을 잘 관리해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Table 10> Status of CEOs of large companies ongoing judicial process

	Top Manager	Criminal Matters	Judgement
Han hwa Group	President	480 billion embezzlement malpractice	3 years imprisonment in 2nd trial
CJ Group	President	150 billion embezzlement malpractice	first trial in progress
SK Group	President	190 billion embezzlement malpractice	4 years imprisonment in 2nd trial
	Vice-President	190 billion embezzlement malpractice	3 years 6 months imprisonment in 2nd trial
Teagwa ng Group	Past President	160 billion embezzlement malpractice	4 years 6 months imprisonment in 2nd trial
	Fomer Managing Director	160 billion embezzlement malpractice	4 years imprisonment in 2nd trial
LIG Group	President	210 billion CP Fraud issue	3 years imprisonment in 1st trial
	Vice-President	210 billion CP Fraud issue	8 years imprisonment in 1st trial

\* 출처: 조선일보(2013. 10. 2)

Trevino 등[15]은 조직의 리더는 성실성, 정직성, 신뢰성과 같은 도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정하며 명확한 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조직의 실제적인 윤리적 역할모델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의 리더는 윤리적 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은 처벌함으로써 구성원들을 윤리적으로 훈련시키며 윤리적 가치관에 대해 조직원들과 서로 의사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의 배임, 횡령, 기업어음 사기발행 등 불법행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랜 관행,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간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 비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 우리나라의 성숙하지 못한 윤리적 생태계, 법질서를 인식하고 준수하는 의식의 결여, 대기업 총수들의 윤리적 리더로서의 자질부족, 글로벌화된 경쟁체제에서 공정한 경쟁

보다는 비리를 통한 손쉬운 이득의 획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Carroll[16]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경영유형을 비윤리 경영(immoral management), 윤리중립경영(amoral management),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으로 구분하였고, Reidenbach와 Robin[17]은 기업의 윤리수준을 윤리적 발달단계에 따라 무도덕, 준법, 대응, 윤리관 태동, 윤리적 선진단계의 5단계로 나누었다. 앞에서 소개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비리규모나 성격을 볼 때 이들 기업들은 비윤리적 경영 내지는 무도덕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 <Table 11>은 Carroll이 구분한 비윤리적 경영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1>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mmoral management

①	Active and proactive opposition for ethic
②	Selfish management motive
③	Intentional opposition on moral management
④	To pursuit of profit, taking any sacrifice
⑤	The public interest, justice, fairness is not considered at all
⑥	Raw is obstacles to be overcome for management purpose
⑦	To maximize of private profit, taking any sacrifice

사회적 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12]에서 경제적 성과에는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잘 정비된 회계시스템, 사회적 기업의 인증성적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잘 정비된 회계시스템, 사회적 기업이 교육과정의 이수수준, 지배구조가 민주적일 수록 사회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사회안정 및 발전기여도, 직원만족도, 환경보호기여도, 고용창출기여도, 사회적 품질 등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높을 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적 이윤창출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가능해지며 이는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잘 정비된 투명한 회계시스템, 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 사회안정

및 발전기여도, 환경보존과 같은 윤리적 경영을 통해 달성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최고경영진들은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추구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행해온 선언적이고 제도적인 시도가 아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윤리경영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 4. 결론 : 한국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통해 장기적 이윤창출과 자본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선진국을 catch-up 하는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 과정에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분배의 불균형, 정경유착,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공기업의 부패, 회계부정 및 분식회계 등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에 순응하는 문화보다는 법을 어겨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비윤리적 경영이 만연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교과과정에 회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투명한 회계가 국가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회계부정으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고 기업의 파산이나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실제적인 사례기업을 발굴하고 토론식 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의 경영학 또는 회계학 교과과정에 경영윤

리나 회계윤리에 관한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필수과목화하여 최소한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경영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시험은 물론이고 각종 경영 및 회계관련 자격증 시험에 회계윤리에 관한 시험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에도 일정시간 이상의 회계윤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국내외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의 사례들을 체계적인 지식베이스로 구축하고 이에 관한 업데이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기업과 회계감사 수행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19].

다섯째,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기업들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공시내용이 불충분하여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유용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초기단계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감독기관과 감사기관들은 기업들이 이를 분식이나 회계부정에 이용하지 않는지 감독과 감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DI가 2003년 회계투명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우리 나라는 회계제도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그 시행면에서는 불충분하거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섯째, Bushman과 Smith[20]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이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식개선을 통한 경제적, 법적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회계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10월 3일 KBS 파노라마에서 방영된 「그들만의 리그, 부패 네트워크」를 보면, 한국사회는 인맥, 연줄로 강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일부 엘리트 집단들끼리 특혜와 이권을 주고받는 엘리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21]. 이로 인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쉽게 무시되고 불법거래가 만연하게 되어 비윤리경영과 회계부정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세계 30위권 까지 진입했던 웅진그룹이 태양광, 건설사업에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다 창업 32년만에 부도처리되고

윤석금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역시 최고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이를 견제할 수 없는 한국사회 특유의 기업지배구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실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자유롭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낼 줄 아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선진화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와 기득권 세력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진지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사회의 지도층과 기득권 세력이 윤리적 리더로서 진정한 윤리적 모델이 될 때만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Moon, Hwy-Chang, National Advancement Index 2013, 7th Anniversary Symposium, Hansun Foundation, pp. 25-47, 2013.
- [2] <http://ecos.bok.or.kr/>
- [3] <http://kosis.kr/>
- [4] Kang Chul Sung, A Study on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and '20-50 club' entry of Korea, pp. 269-294, 2013.
- [5] Young Hansun Journalists, A Survey on 20's recognition for Advancement, 7th Anniversary Symposium, Hansun Foundation, pp. 9-18, 2013.
- [6] Cho, Pyeong-Sae, A Survey on 20's recognition for Advancement, 7th Anniversary Symposium, Hansun Foundation, pp. 19-24, 2013.
- [7] Daniel Tudor, The Impossible Country, Tuttle Pub, 1st ed., Vermont, 2012.
- [8]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9] A Survey on Business Ethic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2006.
- [10] In Suk Lee, Gwang Heon Hong, Kook Jae Hwang, The Corporate Performance and Business Ethics of MNCs' CEO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7, No. 1, pp. 69-90, 2006.
- [11] Yoon Gih Ahn, A Corporate-Management Model Ahead of an Age and the Sustainable Growth of Yuhan Corporation, Business Ethics Review, Vol. 12, pp. 109-110, 2006.
- [12] Chang, Young Ran, Hong, Jung Hwa, Cha, Jin Hwa,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AIR, Vol. 30, No. 2, pp. 175-207, 2012.
- [13] Chosunilbo, 2013. 10. 2.
- [14] Min Jung Kang, Doo Chel Moon, Yun Sook Oh, A Case Study on Misappropriation of SCD, NTPIA, Acti20, EDU-PASS,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 21, No. 3, pp. 343-380, 2012.
- [15] Trevino, L. K., Hartman, L. P., & Brown, M., Moral person and moral manager: How executives develop a reputation for ethical leadership,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42, pp. 128 - 142, 2000.
- [16] Carroll, A Three-Dimensional Management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Social Forces and Manager, NY: John Wiley & Sons, 1982.
- [17] Reidenbach & Robin, A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Model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991.
- [18] Phil Hwan Oh, A Survey on Ethical Management, Journal of Christian University and Scholarship, No. 1 pp. 63-89, 2008.
- [19] Park Jae-Whan, Lee Gyeong Rak, Insight on Auditing through Accounting Frauds Case Study,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 Technology, No. 1 pp. 59-66, 2005.
- [20] Bushman & Smith, Transparency,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FRBNY Economy Policy Review, 2003.
- [21] League of their own, Corruption Network, KBS Panorama, 2013. 10. 3

이 경 락(Lee, Gyeong Rak)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1999년 8월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회계윤리, 윤리경영, 회계교육

· E-Mail : krlee@bu.ac.kr